

## 미국 'Bedrock Robotics'는 기존 건설장비 자율화 기술 고도화와 무인 건설장비 상용화 추진

해당국가	미국	기관(기업)	Bedrock Robotics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시설물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

### □ 미국 Bedrock Robotics는 기존 건설장비 자율화 기술을 고도화하고, 다수 장비의 통합 운영 기반 무인 건설장비 상용화를 추진

- Bedrock Robotics는 기존 건설장비에 자율운전 기능을 추가하는 'Bedrock Operator' 플랫폼을 개발하여 굴착기, 불도저 등 건설장비의 자율화와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
  - 신규 장비 도입 대신 기존 굴착기, 불도저 등에 자율운전 키트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건설장비 자율화 적용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자율운전 기술을 확산
  - 2025년 11월 약 130에이커(약 53만㎡) 규모 제조시설 부지에서 감독형 자율운전 기반 대규모 굴착 작업 실증을 수행
- 2026년 2월 2억 7,000만 달러(약 3,780억 원)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자율 건설장비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의 기반을 확보
  - 글로벌 투자사들의 참여로 누적 투자금 3억 5,000만 달러(약 4,900억 원) 이상을 확보하며 자율 건설장비 기술 개발의 기반을 강화
  - 2025년 7월 8,000만 달러(약 1,120억 원) 규모의 시드 투자 이후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자율 건설장비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

### □ 건설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건설장비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단일 장비 자율화에서 다수 장비의 통합 운영으로 기술 발전을 가속화

- 숙련된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반복·고강도 작업을 중심으로 자율 건설장비의 활용이 확대
  - Bedrock은 향후 2년간 미국 건설업에 약 80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, 인력 부족과 고령화를 자율화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
  - Boris Sofman 최고경영자는 증가하는 공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 건설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
- 단일 장비 자율화를 넘어 다수 장비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며, 항만, 산업시설, 데이터센터 등으로 자율화 적용 범위를 확대
  - 항만 인프라, 산업시설, 데이터센터, 대규모 토공 현장 등에서 자율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, 2026년 중으로 운전자가 없는 굴착기 배치를 목표로 제시
  - Meta, Waymo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 AI 평가와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 건설장비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

※ 출처 : Bedrock Robotics(2026.02.04), Bedrock Robotics Raises \$270 Million in Series B Funding to Accelerate the Future of Autonomous Construction